

이혼가정의 경제상태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부/모의 차이를 중심으로 -

김 영 희 · 손 정 연*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The Effects of Economic Condition and the Parenting o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Divorced Families

- A Comparison of Custodial Fathers and Mothers -

Kim, Young Hee · Son, Jeong Yeon*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 Seoul, Korea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economic conditions and parenting of custodial fathers/mothers and to explain their impacts on the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fter divorce. A total of 185 custodial parents divorced within the last 5 years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Children's social adjustment w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and was defined as their school performance and behavior problems. Results show that compared with divorced custodial fathers, divorced custodial mothers demonstrate more effective parenting,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conomic conditions between them. In addition, children in single-father divorced families have lower school grades and more behavior problems than those in single-mother divorced families.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economic conditions and parenting have different effects for children across family type. For children raised with a custodial father in divorced families, the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ivorce duration are associated with lower school grades and behavior problems. For children with a custodial mother, however, the effective of parenting and the children's ag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fter the parent divorc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adjustment in divorced families.

Key words: divorced custodial fathers/mothers, economic condition, parenting,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behavior problems

본 연구는 2003년도 두뇌한국 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접수일: 2005년 6월 25일 채택일: 2005년 7월 30일

Corresponding Author: Kim, Young Hee Tel: 82-31-670-5234

E-mail: ykim@hnu.hankyong.ac.kr

I. 문제제기

우리나라 이혼율은 1990년 이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건수로 측정되는 조이혼율의 경우 1970년에는 0.4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 1.1, 1995년 1.5, 2003년에는 3.5에 이르렀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가정의 자녀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 이혼한 부부의 70%가 20세 미만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녀가 1명인 가정이 30%, 2명이 35%, 3명이 4.7%이다. 이 수치를 적용해 볼 때 2002년 한 해에 약 16만 명이 넘는 미성년 자녀들이 새로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는 것이다(전수정 2003).

그동안 서구의 연구들은 이혼가정 자녀들이 양친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발달 및 적응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경제적 결핍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양육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갈등 등 가족의 상호작용적 과정(interactional process)이 이혼가정 자녀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Amato & Keith 1991). 말하자면, 이혼한 부/모는 양친가정 부/모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Hilton et al. 2001; McLanahan & Booth 1989), 이러한 부모행동은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혼후 양육부/모가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비일관적이고 더 거부적이며 덜 애정적인 양육을 하는 경향이 크고, 이는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owney 1994; Peterson & Zill 1986).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이혼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나 부적응에 관한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으며(송미승 2002; 오승환 2001; 장혜경·민가영 2002; 조성연 2004),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이삼연 2002; 이순형 등 2005; 전수정 2003). 따

라서 서구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결핍요인과 양육부/모가 수행하는 부모행동 요인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특히, 양친가정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을 비교하면서 학업성취, 문제행동 등의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오승환 2001; 이정환 2003; Bronstein et al. 1994; Hilton et al. 2001; Peterson & Zill 1986),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혼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혼가정은 아동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면 편모가족, 아버지가 주 양육자이면 편부가족으로 구분되는데,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경제적 상황, 가족원의 적응양상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편모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빈곤 등의 문제(장혜경·민가영 2002; 조성연 2004), 또는 이혼 후 양육부/모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이삼연 2002; 이순형 등 2005; 전수정 2003; 홍순혜 2004), 이혼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들의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하겠다(문선화 1999; 천혜정·최혜경 2001).

더욱이, 이혼 편부 또는 편모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 구체적으로 자녀의 적응실태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서구에서도 이혼 후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적응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편모 가정 자녀는 경제적 결핍에 의해 학업성취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편부 가정 자녀는 적절한 양육행동 부족이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1994).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이혼가정을 편부가족과 편모가족으로 나누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상황, 편부 또는 편모의 양육행동,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 두 집단 적응정도에 차이가 나는 경우 경제적 결핍, 양육행동 등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혼 편부가정, 편모가정 각각의 가족특성이 잘 나타나는 가운데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개입 서비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II. 관련연구 고찰

1. 이혼 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

서구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서 행해진 이혼 가정 자녀와 양친가정 자녀와의 비교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혼가정 자녀들이 양친가정 자녀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개념, 부/모-자녀관계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Amato & Keith 1991).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한지 5년이 지나도 자녀의 30%이상은 다소간 또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보이며, 15년 후까지는 상당수가 연애나 혼인관계 등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Wallerstein & Blakeske 1989; 이정환 2003에서 재인용). 또한, 양친가족 자녀보다 공격성 및 행동장애 등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고(Peterson & Zill 1986), 학업성취와 지적 능력이 더 낮다는 것이다(Downey 1994). 아동의 IQ를 통제한 전국적인 비교에서도 이혼가족 자녀가 양친가족 자녀에 비해 학업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uidubaldi et al. 1989; 오승환 2001에서 재인용).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혼가정 자녀들이 양친가족 자녀보다 자아존중감(이삼연 2002; 홍순혜 2004)과 학교성적(오승환 2001; 홍순혜 2004)은 더 낮고, 비행성향(오승환 2001; 이삼연 2002)과 공격성(홍순혜 2004)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혼가정 자녀의 부정적 결과를 설명하는데 경제적 결핍요인을 강조하여 왔다. 이혼 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은 아동의 지적인 성장에 유리한 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증연구에서도 부/모의 이혼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저하시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경제적 결핍 관점을 지지한 연구결과가 있다(홍순혜 2004).

한편, 이혼한 양육부/모의 부모역할 및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 등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인식이 교육학이나 가족학 분야에서 축적되었다(김영희 1996).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이순형 등 2005). 양친가족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혼모가 높은 수준의 온정을 보이고 효율적인 훈육을 제공하는 경우 자녀들은 질 낮은 훈육을 제공하는 이혼가정의 자녀들보다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고,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것이다(Peterson & Zill 1986).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홍순혜 2004)에 의하면, 이혼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가정의 경제수준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환(2002)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하여 편모가족 월평균 소득의 효과가 무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자녀의 학업에 대한 편모의 관심과 지원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이순형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부/모와 자녀간의 폐쇄적이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생성하며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내면화될 때 아동의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이혼한 양육 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 및 자녀 적응의 차이

이혼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녀양육자가 편모 혹은 편부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배우자가 없다는 면에서 공통된 문제도 있다. 즉,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이혼 가정의 적응양상, 경제적 상황, 사회 심리적 상황, 자녀양육 방법 등이 달라진다 하겠다. 이혼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경우 편모가족의 어려움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버지 부재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편모들은 경제적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오승환 2001; 장혜경·민가영 2002).

그러나 편부가족의 가족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며, 더욱이 이혼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의 양육행동이나 자녀의 적응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¹⁾. 이혼후 양육부/모의 양육행동의 경우, 두 사람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수행함으로써 인해서 나타나는 편모, 편부의 역할과다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일상생활을 감독하며 숙제를 도와주는 등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며, 이는 낮은 질의 양육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편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천혜정·최혜경 2001)에 의하면,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는 역할수행상의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수행해오던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이러한 역할을 배우는 기회 또한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처럼 자녀양육의 어려운 상황은 아동의 적응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혼가정을 포함한 편모가정, 편부가정 및 양친가정 자녀의 적응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서구의 연구(Hilton et al. 2001)에 의하면 양친가정에 비해, 편모 또는 편부가정 자녀의 자존감이나 학업성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편부/모가정 자녀의 외현적, 내현적 문제행동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오승환 2001)에서는 편부가정 자녀가 편모가정 자녀에 비해 우울, 불안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편부가정의 자녀가 편모가정 자녀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았지만, 두 집단간 공부태도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행과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비교한 결과, 편부가정 자녀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편모가정, 양친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오승환(2001)은 편부의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양친가족 부모에 비해 잘 수행하지 못해 자녀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부/모의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서구 연구를 조명해 보면, 편모 가정 자녀는 경제적 결핍요인에 의해 학업성취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편부 가정 자녀는 적절한 양육행동 부족이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편부, 편모가정을 구분하여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 이혼기간, 경제 상태, 양육행동 등 가족특성 및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가족 특성변수들이 두 집단 자녀의 학업성취 또는 문제행동 등 사회적 적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변수의 선정과 측정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변수들과 이들 변수의 측정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으로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상태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 이하'에서 '대학원 졸 이상'의 항목으로 6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이혼가정 부모가 지각한 주관적 경제상태는 '매우 나쁘다' 1점부터 '매우 좋은 편이다' 5점까지 나누어 측정하였다. 또한, 이혼 후 경과기간은 년수로 측정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은 막내아의 연령을 사용하여 6세 이하 유아기에는 '0'을, 7세 이상의 아동기 이후에는 '1'을 부여하여 이분화 하였다.

이혼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현온강·조복희(1994)의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및 Simons 등(1992)의 Supportive Parenting Scale을 참조하여 3 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를 믿고 격려해준다', '나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등을 질문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1) 우리나라에서 편부가족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증가하는 이혼율과 이혼후 아버지가 양육하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혼후 편부가정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의 편부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4년 편부가정 세대가 12,814세대에서 1996년 14,621세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현 1998; 오승환 2001에서 재인용).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0.84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자녀의 사회적 적응은 양육부/모가 지각하는 본 연구 대상 자녀, 즉, 막내 자녀의 학업성취와 문제행동 정도를 측정하였다. 학업성적 저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문제행동은 '부모 이혼 후 공격적이 되었다' 문항과 '지각, 결석, 문제행동 정도'의 행동적 문제를 묻는 2 문항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0.79이다.

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는 "이혼 남녀의 적응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혼 경험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이루어졌다. 통계청이 2003년도에 발표한 '2002년 혼인·이혼통계'를 기초로 하여 남녀 각각에 대해 연령별 이혼자 구성비를 산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산출된 연령대별 비율에 맞추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혼과정에 대한 회고의 정확성을 위하여 이혼 한지 5년 이내의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이혼자들을 위한 각종 모임, 단체 및 일반기관의 협조²⁾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전문조사요원과 가족학 전공자들이 직접 조사하였다. 부실기재를 제외한 355부 질문지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대상자를 추려서 총 18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아버지 42.2%, 어머니 57.8%로 성별 비율이 비슷하다. 연령은 30대가 39.5%, 40대가 47.0%로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44.0%, 전문대 졸업이상인 42.4%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월 평균가구소득은 100-200만원 사이가 36.1%로 가장 많으며, 200만원 이하인 집단이 67.8%를 차지한다. 또, 대다수인 89.7%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으며, 93.5%의 대다수가 재혼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막내자녀의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 유아기 41.6%, 아동기 37.8%, 청소년기 20.5%의 비율을 나타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이혼후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가족특성 변수의 차이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divorced family characteristics

	Range	Custodial fathers (N=78) M(SD)	Custodial mothers (N=107) M(SD)	t
Education	1-6	3.64(1.24)	3.61(1.18)	0.02
Economic condition	1-5	2.51(0.88)	2.32(0.91)	2.05
Divorce duration	1-6	4.60(1.44)	2.94(1.65)	50.67***
Children's age	0 or 1	0.46(0.50)	0.35(0.48)	2.38

Table 1은 분석에 포함한 가족특성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양육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경제상태 또한 이혼 편부가정이 편모가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후 편부가족보다 편모가족의 경제상태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는 기존 논의(장혜경·민가영 2002) 또는 연구결과(Hilton et al 2001)와 일치하지 않으나, 편부가정과 편모가정의 월평균 수입이나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오승환(200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하겠다.

2)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이혼자 동호회, 한부모가정 연구소, 기러기모임 등)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가장관련 프로그램 수강자, 사회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및 재혼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혼 후 경과기간은 편부가정이 편모가정에 비해 1.5배 이상 길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지니고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있어서는 이혼 편모가정과 편부가정 간에 큰 차이가 없다 하겠다.

2. 이혼 후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적응의 차이

Table 2. Mean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scores for divorced custodial fathers/ mothers

Parenting	Range	Custodial fathers	Custodial mothers	t
		M(SD)	M(SD)	
Trust and encouragement of children	1-5	3.50(0.88)	3.87(0.81)	8.67**
Communication with children	1-5	3.19(0.99)	3.77(0.93)	16.43***
Affective involvement	1-5	3.01(0.93)	3.91(0.95)	40.23***
Total	3-15	9.71(2.40)	11.55(2.33)	26.96***
Children's social adjustment				
Lower school grades(school performance)	1-5	3.15(1.00)	2.27(1.12)	26.90***
Behavior problems	2-10	5.91(1.72)	4.42(2.03)	24.46***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독립변수인 양육행동과 종속변수인 학업성적 및 문제행동의 지각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먼저, 양육부/모의 양육행동은 세 가지 측정문항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혼 후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더욱 자녀를 믿고 격려해주며,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온정적인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애정적, 대화적 양육행동정도는 중간값(9점)보다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종속변수인 양육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볼 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가 더 많이 학업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그리고 더 자주 지각, 결석 등 학교생활 문제와 가출 등 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비록, 단순비교라 하더라도 이혼한 양육부/모의 양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 문제행동 발현에 있어서는 편부가정이 편모가정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혼 편부가족과 편모가족을 구별하여 각 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따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이혼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혼한 양육부/모의 성별로 구분한 후 각 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의 학업성적과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 이혼 편부가정 자녀의 경우

Table 3에 의하면, 두 가지 종속변수인 자녀의 학업성취와 문제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제상태 및 이혼 후 경과기간으로 나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for children's social adjustment (for children with divorced custodial father)

Independent. var.	School performance		Behavior problems	
	b	β	b	β
Education	0.00	0.00	0.00	0.04
Economic condition	-0.55	-0.44**	-1.30	-0.60***
Divorce duration	0.20	0.29*	0.27	0.22*
Children's age ¹⁾	0.28	0.14	0.41	0.12
Parenting	0.00	0.02	-0.11	-0.15
Intercept	3.30		8.47	
Adj. R ²	.22		.46	
F	4.72***		12.11***	

* : p <.05 , ** : p<.01 , *** : p<.001

주: 1)자녀연령-유아기 0, 아동기 이상 1

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그리고 이혼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더 많이 저하되거나, 더 많이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독립 변수들이 편부가정 학업성취의 변이를 설명해주는 양은 22%,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46%로 나타났다.

2) 이혼 편모가정 자녀의 경우

이혼 편모가정 자녀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성취에는 자녀의 연령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 자녀보다는 아동기 이상 자녀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온정적이며 자녀와 대화를 적게 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더욱 저조하다는 것이다. 자녀의 문제행동은 양육행동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이혼 후 어머니가 수행하는 양육행동의 질이 낮을수록 자녀가 더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편모가정의 경우, 5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 학업성취 및 문제행동 모두 총 변량의 12%를 설명하고 있다.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for children's social adjustment (for children with divorced custodial mother)

Independent var.	School performance		Behavior problems	
	b	β	b	β
Education	0.00	0.01	0.00	0.01
Economic condition	0.00	-0.03	0.00	-0.01
Divorce duration	0.12	0.18	0.00	0.05
Children's age ¹⁾	0.42	0.18*	-0.20	-0.05
Parenting	-0.14	-0.29**	-0.34	-0.39***
Intercept	3.42		8.11	
Adj. R ²	.12		.12	
F	3.62**		3.56**	

+ :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주: 1)자녀연령-유아기 0, 아동기 이상 1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가정의 경제상태 및 양육부/모의 양육행동이 이혼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이러한 관련요인은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의미 있게 달라짐을 시사한다 하겠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온정적 양육행동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이 변수와 가족특성 변수들이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이혼한 지 5년 이내의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18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지각하는 경제상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편모가정의 수입은 양친가정 수입의 47%로 빈곤율이 양친가정의 5배인 반면, 편부가정 수입은 양친가정의 86%로 빈곤율이 2배정도로 보고된다(DaNavas & Welniak 1992; Hilton et al 2001에서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 이혼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이혼 후 여성이 자녀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 소득감소 뿐 아니라 양육비 수급의 어려움 등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혼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의 경제상태를 비교, 분석한 자료는 찾기 힘들다. 최근 들어 국내의 한 조사(오승환 2001)에 의하면 월수입 측면에서 편부가정과 편모가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월수입, 경제상태 등을 고려한 이혼 후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가족특성 비교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반면에, 이혼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하여 자녀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며, 더욱 온정적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직접 표시하는 행동에서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나, 이혼한 아버지들은 전통적으로 어머니들이 수행해오던 표현적 역할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천혜정·최혜경 2001)에 의하면, 그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의 교육 및 훈육과 관련된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남성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된 역할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체제나 직장에서 이러한 아버지들의 특별한 요구와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지닌 채 사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던 부자가족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계를 점검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문선화 1999). 또한, 남성들이 새로운 가족체계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사, 자녀 돌보기 등을 훈련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의 개발 또한 절실하다 하겠다.

둘째,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 적응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혼 후 편부, 편모가족을 구별하여 각 가정 자녀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이혼 후 편모가정의 경우 자녀의 연령 및 양육행동이 학업성취 및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모는 생계 유지와 자녀양육이라는 역할부담으로 인해 감정적이며, 일관성이 결여되고, 대화의 빈도가 적어지며,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거나 양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이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숙제를 돌보아 주는 등, 자녀공부에 대한 어머니의 참여기회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극복하고, 양질의 양육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방안임을 시사한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학업성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기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친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편부모 가정에 있어서 학력은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양친가정뿐

아니라 이혼후 편부모가정에게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런 측면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는 편모가정 복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혼 후 편부가정의 경우 가정의 경제상태와 이혼 후 경과기간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더 많이 저하되고, 문제행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이혼한지가 2-5년 된 경우보다 5년 이상 장기간 지났을 경우 이혼가정 청소년의 비행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 이삼연(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혼한 아버지가 지각하는 경제적 상태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사회적 배경의 주요한 입장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아동의 지적인 성장에 유리한 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편모에 비해 편부의 표현적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부양역할 마저 흔들릴때 자녀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된다.

편모가정과는 달리,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가 수행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 양육행동 자체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14.3%, 일상 생활에서 자녀양육의 측면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62.5%,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면 부모 지원 정도는 더욱 높아져 80.5%가 자녀돌보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 편부가정의 경우 아버지 혼자서 자녀양육을 책임지기 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부모행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편부의 부모행동이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대인적 자원 부족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서구의 연구결과(Downey 1994)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횡단적 자료를 통해 나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 일부 변수 간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 설명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혼한 부/모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적응상태를 측정하였으며, 자녀의 적응에 주요 관련변인이라 생각되는 자녀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고려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남성대상자를 포함시켜 이혼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여성 대상으로 구성된 이혼관련 데이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구인회(2003)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2(가을), 5-32.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선화(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아동복지학회지 8, 213-233.

송미숙(2001)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2, 77-107.

오은순 역(2002) Similansky. 이혼가정 아동. 학지사.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0, 37-64.

이순형·이옥경·김지현(2005)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연구: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99-111.

이정환(2003) 모자가족 아동의 학업능력. 가족과 문화 15(2), 61-80.

장혜경·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대 석사논문.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 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천혜정·최혜경(2001) 홀아버지들의 이야기. 한국가

족관계학회지 6(2), 23-41.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7, 151-177.

Amato PR,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Ambert A(1982) Difference in children's behavior toward custodial mothers and custodial fa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73-85.

Bronstein P, Stoll MF, Clauson J, Abrams CL(1994) Fathering after separation or divorce. Family Relations 43, 469-479.

Downey D(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129-147.

Hilton JM, Desrochers S, Devall EL(2001) Comparison of role demands, relationships and child functioning in single-mother, single-father and intac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5(1/2), 29-56.

Kissman K(2001) Interventions to strengthen noncustodial father involvement in the lives of their childre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5(1/2), 135-146.

Kim L(200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Family Relations 52, 258-270.

Mulkey LM, Crain RL, Harrington AJ(1992) One-parent households and achievement: Economic and behavioral explanations of a small effect. Sociology of Education 65, 48-65.

Peterson JL,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5-307.

Schaick K, Stolberg AL(2001) The impact of paternal involvement and parental divorce on young adults'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6(1/2), 99-121.

Shapiro A, Lambert JD(1999) Longitudinal effects of divorce on the quality of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and on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97-408.